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장신재¹

¹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ructural Relationship of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Cin-Jae Chang¹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각 사회에서는 생산적 노화, 적극적 노년 등의 관점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과 참여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0차 데이터(2015년)에서 65세 이상인 노인 3,3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과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건강은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근로능력은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써 건강과 근로 관련 요인들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노인, 주관적 건강,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structural relationship of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Recently, societies have tried to lessen a social burden and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elderly through some perspectives such as productive aging and active aging. In these perspectives pay attention to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to improve quality of life. Subjects were 3,392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from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and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had a 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Second, subjective healt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bility to work and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Finally, ability to 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health and work related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Key Words : Elderly,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장신재(jangsin@sjs.ac.kr)

Received August 11,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September 18,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1. 서론

삶의 만족은 노인복지 연구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5.2세로,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 또한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13.8%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2].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노인 삶의 만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들도 스스로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였다. 이에 학계와 실천계는 생산적 노화, 적극적 노년, 성공적 노화 등의 개념들을 생산·주목하기 시작하였다[3,4].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과거 의존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노인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WHO에서 제시하는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은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과 참여라고 규정하고 있다[5]. 즉, 신체 및 정신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관여 및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4,6,7],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요인은 건강과 근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에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8,9]. 이성은[7]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이었다. 이렇듯 건강상태가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노인이 온전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활동적인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의 건강 문제는 근로능력과 실제 경제활동 참여와 연결됨으로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건강 문제는 근로능력을 저하시키며 구직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활동 참여에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성호 외[10]는 신체적 건강 수준이 양호한 노인이 취업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이 일정 수준 뒷받침 되었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취업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미취업 노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경제활동 참여에 직결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 고용 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취업형이나 인력과견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업은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노인을 공통기준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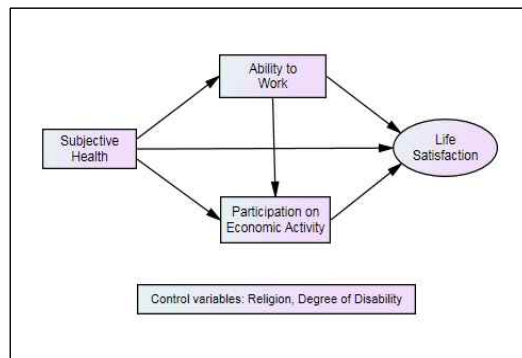
한편, 노인에게 있어 경제활동 참여는 근로소득을 통한 경제적 수단이자,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11,12]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흔히 활동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활동이론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참여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삶의 만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13].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생산적 고령화에 대한 고민으로서 건강과 근로 변인이 실제 노인 삶의 만족에 있어 가지는 관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건강,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간의 핵심적인 흐름을 구조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2. 연구방법

1.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장 대표성 있는 데이터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다.

2.3 측정도구

2.3.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단문항으로,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답하도록 하고 있다. 원 문항의 답변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을 좋다고 인식한다.

2.3.2 근로능력

근로능력은 노인의 근로능력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1부터 4까지의 응답 범주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을 1,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은 가능)을 2,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를 3, 근로가능을 4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3.3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는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근로를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근무에 참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근로로 포함하였다. 즉,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만을 비근로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는 근로로 구분하였다.

2.3.4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총 6문항으로,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가족의 수입 만족, 주거 환경 만족, 여가생활 만족, 전반적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매우 불만족)부터 5(매우 만족)까지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0으로 나타났다.

2.3.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종교와 장애정도를 활용하였다. 장애정도는 비장애인인 0, 비등록 장애인인 1, 6급은 2, 5급은 3, 4급은 4, 3급은 5, 2급은 6, 그리고 1급은 7로 바꾸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성별은 남성이 1,839명, 여성이 1,55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5-69세가 16.77%였으며, 70-74세가 23.50%, 75-79세가 27.33%, 80-84세가 21.45%, 85세 이상이 10.94%였다. 종교가 있는 노인은 1,894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81.63%의 노인은 장애가 없었으며, 응답한 노인의 12% 정도가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64.45%였고, 35.55%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392)

	Categories	N(%)
Gender	Male	1,839(54.22)
	Female	1,553(45.78)
Age	65-69	569(16.77)
	70-74	797(23.50)
	75-79	927(27.33)
	80-84	728(21.46)
	≥ 85	371(10.94)
Religion	Yes	1,894(55.84)
	No	1,498(44.16)
Degree of disability	No disabilities	2,769(81.63)
	Unregistered	42(1.24)
	Grade 6	137(4.04)
	Grade 5	132(3.89)
	Grade 4	146(4.30)
	Grade 3	85(2.51)
	Grade 2	56(1.65)
	Grade 1	25(0.74)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Yes	2,186(64.45)
	No	1,206(35.55)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N=3,392)

	Subjective health	Availability to work	Life satisfaction
Minimum value	1.00	0.00	8.00
Maximum value	5.00	3.00	30.00
Mean	2.80	2.32	20.48
Standard deviation	0.86	0.87	3.07
Skewness	0.21	-0.80	-0.59
Kurtosis	-0.85	-0.85	0.42

3.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					
②	.006	1				
③	.005	-.143**	1			
④	-0.023	-.190**	.377**	1		
⑤	.034*	-.087**	.257**	.515**	1	
⑥	-.103**	-.107**	.315**	.246**	.168**	1

*p<.05, **p<.01, ①Religion, ②Degree of disability, ③Subjective health, ④Availability to work, ⑤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ies, ⑥Life satisfaction

3.4 측정모형 검증

<Table 4>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β	t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0.579	0.521	31.159***
	Social relationship	0.702	0.675	43.037***
	Family income	0.688	0.492	29.071***
	Living environment	0.597	0.511	30.449***
	Leisure life satisfaction	0.912	0.732	47.911***
	Overall satisfaction	1.000	0.926	
Subjective health	-	2.805	0.015	190.254***
Availability to work	-	2.321	0.015	155.245***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	0.356	0.008	43.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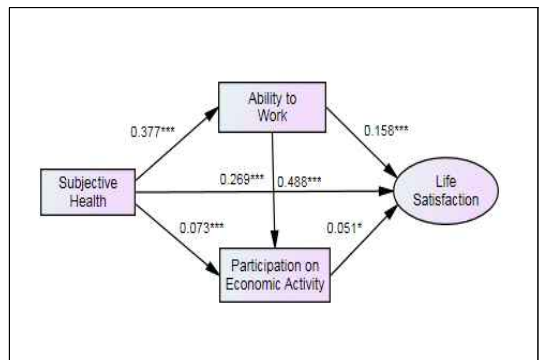
***p<.001

본 연구에서 모형의 측정변인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49.842^{***}(df=24)$, TLI=.909, CFI=.951, NFI=.949, RMSEA=.072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어 변수들이 구조모형을 형성하기에 적절하였다.

3.5 구조모형 검증

앞서 검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형성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620.534^{***}(df=41)$, TLI=.896, CFI=.935, NFI=.931, RMSEA=.065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적합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Fig. 2]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경로계수가 0.269($t=13.245$, $p<.001$), 0.158($t=7.417$, $p<.001$), 0.051($t=2.568$, $p<.05$)로 나타났다. 즉, 주요변수들이 모두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근로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경로계수가 0.377($t=23.709$, $p<.001$), 0.073($t=4.589$,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주관적 건강을 좋다고 인식할수록, 근로능력 정도도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근로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488$, $t=30.795$, $p<.001$).



[Fig. 2]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Table 5> Structural Model

	B	β	S.E	C.R.
Subjective health → Life satisfaction	0.132	0.269	0.010	13.246 ***
Availability to work → Life satisfaction	0.077	0.158	0.010	7.417 ***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 Life satisfaction	0.045	0.051	0.018	2.568 *
Subjective health → Availability to work	0.383	0.377	0.016	23.709 ***
Subjective health →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0.041	0.073	0.009	4.589 ***
Availability to work →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0.268	0.488	0.009	30.795 ***

*p<.05,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건강과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는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14,15]과 일치하였다. 둘째, 노인의 건강은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더욱 많은 사회적 참여를 한다고 밝힌 종래의 연구결과[16]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셋째,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되며, 선행연구[17]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변화와 노년층의 세대적 특징-즉, 고령사회의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은 이후 노인들의 삶이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모해갈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노인의 삶에 있어서 건강과 근로 요인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18], 노인 대상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예방을 위해 관련 서비스

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 및 보건 서비스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는 매우 낮았다[19]. 따라서 노인이 시기별로 혹은 대상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구청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관련 소개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부처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생산적 노화론에서는 노동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며, 따라서 이 기간을 가능한 오래 지속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된다[20]. 이전까지 서구 복지국가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은 공적연금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의 장기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OECD가 2000년에 발표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개혁조치’에서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활동적 근로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21]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교대제, 휴식시간 제공, 유연한 근로시간 도입 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심각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 보장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22].

REFERENCES

- [1]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 [2]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3] D. Y. Lee, H. Y. Seo, B. C. Lee & G. H. Jung, “Development and Effects of Laughter Therapy Program in Geriatric Successful Aging and Stress in Elderly”,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99-208, 2016.
- [4] S. C. Lee, “Social Rol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20. No. 4, pp.9-35, 2013.
- [5] http://www.who.int/ageing/active_ageing/en/.
- [6] H. S. Kim & G. E. Kang, “Study on Perspectives of Successful Aging for the Elderly in Jeju island”, J.

-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9. pp. 159-186, 2013.
- [7] S. E. Le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with Chronic Illn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0. No. 1, pp. 234-262, 2012.
- [8] J. L. Worobey & R. J. Angel, "Poverty and health: Older Minority Women and the Rise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 370-383, 1990.
- [9] S. H. Oh,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119-147, 2006.
- [10] S. H. Hu, J. D. Kim, & T. Y. Jung,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4, pp. 1103-1118, 2011.
- [11] C. H. Ham & H. Y. Oh,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in the Job Creation Projects for the Elderly on the Social Relations of the Participants -Focused on Jeonnam Province-",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8. pp. 220-250, 2010.
- [12] C. J. Chang & J. Y. Cho, "Effect of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o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3, pp.123-132, 2015.
- [13] R. J. Havighurst, & B. L. Neugarten,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A Sociopsychological Inves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 [13] J. Smith, M. Borchelt, H. Maier & D. Jopp, "Health and well-being in the young old and oldest old", *J. of Social Issues*, Vol. 58. No. 4, pp. 715-732, 2002.
- [14] S. M. Park, J. A. Son, S. W. Bae,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Prospectiv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Vol. 25. No. 3, pp.1-24, 2009.
- [15] J. W. Lee, "Converged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237-246, 2016.
- [16] S. M. Park, "Effects of Health Status on Life-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3. pp. 305-332, 2011.
- [17] Y. S. Chung, C. H. Kang & M. H. Kim,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2.
- [18] E. K. Han, "Convergent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leep among Elderly Insomnia Pati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141-150, 2017.
- [19] S. Y.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99-117, 2006.
- [20] K. H. Jung, G. H. Han, J. S. Kim & J. K. Lim, *Critical Approaches to 'Successful Aging' Discour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 [21] S. J. Choi & T. S. Kim,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Elderly Koreans in the Era of Aging Society", *Korea Social Science*, Vol. 24. No. 2, pp. 1-41, 2002.
- [22]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KOREA LABOR INSTITUTE. 2005.

저자소개

장 신 재(Cin-Jae Chang)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빈곤 가족, 공공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